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체계와 후계문제¹⁾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지난 9월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이름이 당대표자회에서 언급될 가능성과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이 작년 1월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이번 당대표자회가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의 이름이 대회 첫날부터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필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즉 당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9월 28일 새벽에 북한은 김정은에게 전날인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외부세계의 시각들을 일거에 일소했다. 그리고 28일 김정은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군사 분야의 제2인자 직책에 임명하고, 이를 29일 새벽에 발표함으로써 김정은이 김정일의 명실상부한 후계자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드러냈다. 이로써 김정은은 작년 1월 8일 북한 지도부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결정된 지 약 20개월 20일 만에 대외적으로도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북한에서의 3대 권력세습의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북한 외부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김정일은 북한체제가 단순한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군주제적 사회주의체제’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제2인자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성장과정과 자질, 후계자로 결정된 배경, 후계체계 구축 과정 등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그동안 김정은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해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김정은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의 스위스 유학시절에 대해서는 필자가 여러 차례 논문 발표와 언론기고를 통해 자세하게 밝힌 바 있지만, 뒤늦게 국내외 언론에서 유학시절 김정철의 모습을 김정은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대표자회 개최 전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직 김정은이 ‘나이’와 ‘경험’에 대한 선입견만을 가지고 “현재 김정은의 나이와 경력, 인맥 등을 감안하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

1) 본고는 필자가 『월간조선』, 『월간중앙』, 『북한』 2010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임.

식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런데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김정은은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이라는 핵심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김정일과 함께 제일 앞줄에 앉아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도 등장하는 등 북한 정치무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일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적실성 있는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김정일의 부상과정과 김정은의 부상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지난 9월의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북한 후계문제와 남한중심주의

어떤 집단이든 그 자신의 문화가 제공한 렌즈를 통해 세계를 본다는 점에서 자민족중심적이다. 지상의 어느 민족도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자민족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국의 북한 후계문제 연구에서도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스탈린주의적이고 왕조체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많은 부적절한 해석과 혼란이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북한 후계문제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장남' 김정남에 대한 과대평가,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에 대한 과대평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에 대한 과소평가, 북한 후계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과소평가, 후계자의 권력기반에 대한 무시,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 등이 있다.

먼저 오랫동안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북한에서 왕조시대의 '서장자'에 상응하는 위상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김정남에 대해 '장자'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유력시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른바 '장자 승계의 원칙'은 순수한 이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남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세 아들 중 김정남을 총애해야 하고, 김정남을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오직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성장해온 김정남을 '장자'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해왔다.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에 대해서도 그가 김정일 사후 이른바 '섭정왕'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에만 주목하여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그동안 그를 북한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묘사해왔다. 그리고 마치 김정일 이후 장성택의 결단에 의해 김정은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처럼 과

대평가해왔다. 그러나 장성택이 ‘섭정왕’이나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김정일은 장성택이 ‘땀 맘’을 먹는 것을 우려하여 2004년 장성택의 직무정지 이후 그의 대형 장성우를 평양 방어를 책임진 3군단장 직에서 중앙당 민방위장으로 옮기고 다시 이 직책에서도 해임했다.

장성택은 2006년 초 정치에 복귀한 후 2009년 4월 국방위원회에 선출되고, 2010년 6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지난 9월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장성택이 이들 직책에 임명된 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관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중앙당 행정부장 자격으로이지, 군대에 대한 지휘 권한을 주는 인사는 아니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김정은과 함께 대장의 군사칭호를 받을 때 장성택은 어떠한 군사칭호도 받지 못한데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은 ‘준비단계’에서 비로소 ‘구축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군사 부분의 제2인자 직책에 임명된 후에는 여전히 “후계자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데다 주민 지지기반이 약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김정은이 권력 장악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현재 만27세이기 때문에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그를 뒷받침하는 엘리트 그룹의 존재 유무, 북한의 봉건적 정치문화, 그의 군 장악 정도 등 다른 중요한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나이와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김정은의 ‘나이’와 ‘경험’에만 집착하고 다른 변수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협애한 시각으로는 북한군이 이미 작년부터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변화해온 사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이 ‘대외적 공식화 단계’로까지 진전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북한에서와 같이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후계자’라는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27세의 나이에 제2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와도 다른 ‘군주제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고, 후계자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27세라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군주제 국가에서 27세의 나이라면 ‘왕세자’에 임명되거나 왕위를 계승하는데 결코 어린 나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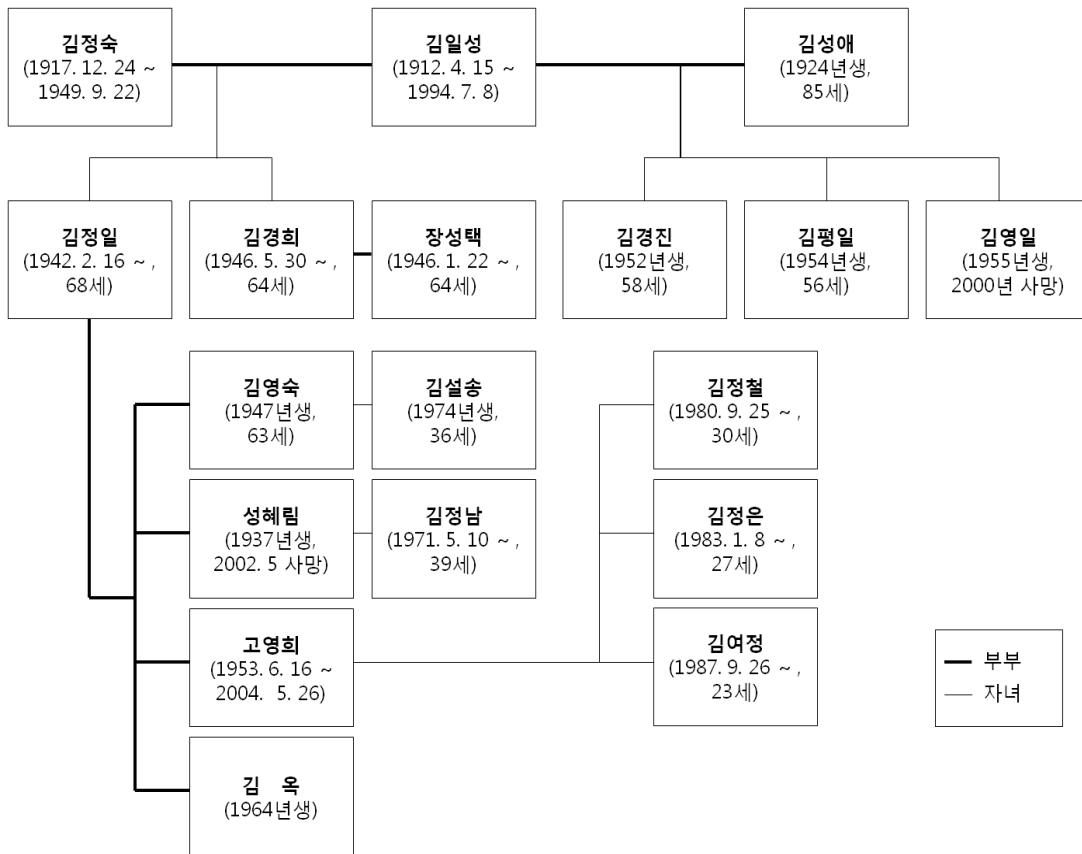
해방 직후 북한체제는 레닌주의적 집단지도체제를 부정하고 최고지도자(수령)을 절대시하는 스탈린식 체제로 출발했다. 그런데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되면서 군주제 국가에서처럼 수령(김일성)과 후계자(김정일)의 생일이 ‘최대의 명절’로 기념되고, 모든 파워 엘리트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충신과 효자’가 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주의적 군주제’ 체제로 변화되었다. 게다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들이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과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황장엽씨는 『월간조선』 2003년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3대 권력세습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반발이 없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발을 할 수 없는 체제요. 김정일이 빨리 죽는다면 모를까”라고 답한 바 있다.

3.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 비교

1) 김정은의 출생연도와 이름을 둘러싼 혼란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접촉해서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아는 외부세계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김정일의 요리사로 11년간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가족의 생일 파티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경험이 있는 후지모토 겐지는 2008년 12월 동경에서 가진 필자와의 장시간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1983년 1월 8일생이라고 밝혔다.

<도표 1> 김정일 총비서의 가계도



그러나 월간조선사에서 2003년에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한 그의 책 『김정일의 요리사』, 261쪽에는 김정은이 1984년생으로 적혀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김정은이 1984년생으로 알려져 왔고, 지금도 많은 언론에서 그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요리사』를 자세히 보면, 김정은을 1984년생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후지모토 겐지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의 출생연도에 대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산이라는 '북한 전문가'가 추정해 쓴 김정은의 출생연도가 마치 후지모토 겐지의 주장처럼 그 동안 잘못 알려져 온 것이다.

김정은은 재일동포 고경택의 딸인 고영희와 김정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정일은 고영희

를 1975년경에 만나 1976년경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의 형제로는 1980년 생인 친형 김정철과 1987년생인 여동생 김여정(또는 김일순)이 있다.

김정은의 이름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김정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의 존재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린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을 '김정운'으로 잘못 듣고 소개한데 기인한 것이었다. 일본어에는 'ㅡ' 모음이 없고 'ㅜ' 모음밖에 없어 일본인은 '은' 발음을 '운'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같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만의 사진작가 후양 한밍씨가 2009년 9월 원산 근교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적힌 벽보 사진을 찍어 인터넷 포털 '야후'의 사진 공유 사이트(www.flickr.com)에 올림으로써 김정일 3남의 이름이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임이 밝혀졌다.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은'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김정운'으로 부르더라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내부 문건을 통해 김정일의 후계자 이름이 '김정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진 1> 대만 사진작가 후양 한밍씨가 2009년 9월 원산에서 찍은 김정은 선전 벽보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29868194@N08/3944502627/>

2) 김정일과 김정은의 성장 및 정치적 부상 과정 비교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므로 그의 성장 및 정치적 부상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더 나아가 김정일과 김정은의 성장 및 정치적 부상 과정을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부상 과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부상 과정을 ‘후계수업 단계’, ‘후계자 내정 단계’,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 단계’로 나누어 비교할 것이다.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인 1942년에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었고 항일 빨치산 지도자 중의 한 명에 불과했지만, 편의상 김정일이 태어난 시점도 ‘후계수업 단계’에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김정은의 경우에도 편의상 그가 태어난 시점을 ‘후계수업 단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1)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수업 단계’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소련에서 항일 빨치산 지도자 김일성과 그의 동료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났다. 1945년 해방 직후 김일성이 소련군의 지원 하에 북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로 내세워짐에 따라 김정일은 이때부터 ‘최고지도자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1949년에 사망함으로써 김정일은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이 같은 성장환경이 김정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조속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남산고급중학 시절인 1959년 김정일은 김일성을 수행하여 소련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김일성의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는 김정일이 이미 이때부터 ‘왕자’와 같은 특권적 지위에 있었고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64년 3월에 조기 졸업했다. 그는 재학시절인 1961년 만 19세에 노동당에 입당하였고, 대학 졸업 직후인 1964년 4월 당중앙위원회 중앙지도과 지도원에, 동년 6월에는 조직지도부 지도원에 임명되었다. 이후 1964년~1966년의 3년 동안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장기출장 15회를 포함해 모두 31회 동행하였고, 1967년 5월에는 만 25세의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과 간부들의 숙청을 실무적으로 주도하였다.

1967년부터 김정일은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화한 문학작품 ‘피바다’와 혁명적 작품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을 영화로 만들었다. 김정일은 또한 혁명가극 ‘피바다’를 탄생시키는 등 선전선동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1974년에 후계자로 선정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을 처음 만난 곳은 신천초대소였는데, 그 때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일이 김정은을 미래의 ‘대장’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2009년 하반기에 북한 내부에서 중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선전문건인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는 “청년대장 동지는 이미 3살 때부터 총을 잡고 명중사격을 하시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과연 3살 때부터 ‘명중사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김정일이 여러 초대소에 사격장을 설치하고 자주 사격연습을 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김정은도 어렸을 때부터 사격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북한 군대에서 초차 1년에 1인당 세 발의 실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 셈이다.

김정은은 국내에서 정규 인민학교나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과외수업을 받았는데, 과외교사를 선정하는 임무는 그의 고모부 장성택이 맡았다. 김정은은 그의 두 형들이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것처럼,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베른에서 유학했다. 처음에 1년간 외국어 교육학생반에 있다가 6학년 때 정규반으로 옮겼으며, 그후 리베펠트-슈타인훔츨리 공립학교에서 7학년과 8학년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단계인 9학년에도 일정 기간 재학하다가 2000년 말에 학교를 그만 뒀다.

<도표 2>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수업 단계' 비교

단 계	내 용
김 정 일 (1945~19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 11월 만경대혁명자유자녀학원(만경대혁명학원) 편입 - 1953년 9월 삼석인민학교 5학년 편입 - 1954년 9월 평양제1중학교 입학 - 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입학, 1964년 3월 조기 졸업 - 1961년 7월 조선로동당 입당 - 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 -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과 숙청을 실무적으로 주도 - 1967년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화예술과 지도과장 - 1970년 9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 1973년 7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김 정 은 (1983~200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고영희와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왕자'로 키워짐. 김정일은 세 아들 중 특히 김정은을 총애했. - 스위스 유학(1996 여름~2001.1) - 고영희 생존 시 북한 엘리트들이 참석하는 각종 연회 참석 - 고영희가 김정철 또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측근을 동원하여 김정일 설득 - 고영희 생존시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동행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보병지휘관 3년제와 연구년 2년제 수학(2002~2006.12) (김정일의 선군정치 계승에 필요한 자질 습득)

김정은이 다녔던 베른의 슈타인훔츨리 공립학교측은 “북한 외교관 자녀의 신분으로 1998년 8월부터 2000년 가을까지 북한 출신의 한 학생이 재학했다”고 2009년 6월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베른 칸톤(州) 쇠니츠 게마인데(區)의 윌리 슈투더 구청장은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부지런하고 야심에 차 있었다”면서 “그의 취미는 농구”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다녔던 학교의 현재 교장이자 당시 수학 교사였던 페타 부리(52)씨도 김정은에 대해 같은 의견을 보였다.

고영희는 생존 시 북한 엘리트들이 참석하는 각종 연회에 김정철과 김정은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두 아들 중 한 명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측근을 동원해서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2001년에 귀국한 후 2002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군사학을 전공했다. 북한 군대에서 2009년 5~6월경 작성되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비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이하 「위대성 교양자료」로 약칭)는 “의미 깊은 2006년 12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의 졸업식 날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계승’

의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이때가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대성 교양자료」는 2006년 12월 24일 인민군 지휘성원 모두가 김정은이 북한에서 최초로 인공위성 자료와 GPS수신기 좌표를 이용해 만든 작전지도를 보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사전략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기상천외하고 천별만화하는 만점 계획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김정일도 이 작전지도를 보고 “작전계획이 아주 창조적이고 착상이 기발하여 1~2번 감복한 것이 아니라고 의미 있게 말씀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대학생이 인공위성 자료와 GPS 수신기 좌표를 가지고 작전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김정은이 이처럼 첨단정보를 가지고 작전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김정일의 아들로써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가 김정일에게 인정받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군 내부 자료는 또한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에 보병지휘관 3년제와 연구원 2년제를 전과목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대학이 김정일의 3남에게 그보다 낮은 성적을 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성장과정을 비교하면, 김정일은 국내에서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대학 졸업 후 선전선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 김정은은 조기 유학을 통해 외국어와 국제 감각을 갖춘 다음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입학하여 군사학을 공부함으로써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계승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 공통되는 점은 그들 모두 최고지도자의 아들로써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김정일은 영화, 김정은은 군사정보)를 가지고 각기 선전과 군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단계’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단계’를 비교하면, 김정일은 ‘후계수업 단계’에서 당내에서 급속도로 승진하며 선전선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후계자 내정 단계’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제2인자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 선전 담당 비서에 임명되었지만, 김정은은 ‘후계자 내정 단계’에서 당의 요직에 임명되지 않은 채 후계자 지위를 담당하기 위한 준비를 은밀히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은이 태어난 평북 창성의 관저는 김정은의 ‘혁명역사’를 칭송하기 위한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년여에 걸쳐 극비리에 확장 개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에 있을 때 옥외 사격장까지 갖춘 평북 창성의 초대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적지로 지정된 관저는 바로 이 초대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의 백두산 밀영 집과 같이 주민들에게 나중에 ‘혁명의 성지’로 교양하기 위한 김정은 고향집 사적지는 김정일의 명령으로 당중앙위원회 역사연구소의 지도하에 북한군 제1여단 연대의 특별건설대에 의해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이 적어도 2007년 3월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표 3>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단계 비교

단 계	내 용
김 정 일 (1973~1974.2)	-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에 선임됨
김 정 은 (2006.12~2009.1)	- 김정은이 태어난 평북 창성의 관저를 사적지로 지정 - 김정은의 북한사회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뒷받침할 정치, 경제, 군사 등의 40~50대 실력자들로 구성된 실무팀 구성 -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수행 - 2008년 11월 자강도 군수공업 부문에 대한 김정일 현지지도에 동행하여 군수공장과 군 부대 시찰 - 2008년 12월부터 군부에서 비공개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지하는 켈기모임 시작됨 - 2008년 12월 김정일의 사리원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 동행

김정은의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 등의 40~50대 최고 실력자들로 구성된 실무팀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초부터이지만, 이 실무팀이 구성된 것은 2007년이다. 이 같은 사실도 2006년 말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영희 생존 시에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에 자주 동행했던 김정은은 2004년 고영희 사망 후 한동안 이 같은 수업을 중단했다가 2007년부터는 다시 김정일의 공식 활동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후계수업을 받다가 2008년 여름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후 서서히 회복되면서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 날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3)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를 비교하면,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된 데 비해, 김정은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후계자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김정일의 경우 후계자 내정 단계에서 김일성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추대' 형식을 거칠 수 있었다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인해 서둘러 후계자 지명부터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대내적 공식화 단계에서 김정일은 이미 제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 '추대' 직후 김일성에게 올라가는 보고가 자신을 거쳐서 올라가게 하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 수립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당과 군대, 공안기관부터 먼저 장악한 후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수립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도체제가 후계자 결정 후 약 1년 반만에 구축되는 매우 빠른 진전을 보였다.

김정은의 경우 후계자로 결정된 후 약 1년 넘게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과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장성택의 그늘에서 벗어날 정도로 업무와 간부 장악에 있어서 1970년대 중후반의 김정일보다 빠른 속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정일의 불안정한 건강상태, 김정은의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40~50대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실무조직의 지원, "리더십과 카

리스마 부문에서는 김정일처럼 보통이 아닐 정도의 김정은의 강한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표 4>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 비교

단 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김 정 일 (1974.2~198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되고 정치위원회(정치국) 위원에 선출됨 - 1974년 4월부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 수립 시작 - 1974년 10월경 중앙당 전문부서와 정무원 장악 - 1975년경부터 군대가 김일성에게 보고·비준문건을 직접 올리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자신을 통하도록 체계를 바꿈. - 1977년 8월 김일성은 김정일이 부장으로 있는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 간부들의 당조직 생활을 철저히 장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 1979년 2월 김일성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움
<p style="text-align: center;">김 정 은 (2009.1~2010.9)</p>	<p>1)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지도체계 구축(2009년 상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월 8일 후계자 결정 후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군 총정치국을 통해 당과 군대 장악 착수 - 1월~2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대, 중앙당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모임 개최 - 2월 16일 축포행사에 김정은이 참석하여 지휘 - 군이 서서히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변화됨 - 북한의 파워 엘리트 인사에 관여 - 각 조직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단계적으로 후계자 결정 통보 - 김정은에 의한 권력승계 정당화 문건 및 찬양가요 배포 <p>2) 김정은의 정책적 지도체계 구축(2009년 하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합의하여 군대와 당의 중요 정책 결정 - 김정은 주도의 북한 개혁·개방전략 수립 팀 구성, 가동 - 군 총정치국과 공안기관들의 김정은에 대한 직보 체계 수립 - 일부 공공장소에 김정은 선전벽보 및 김정은 찬양가요 ‘발걸음’ 게시 <p>3) 정책결정과 인사에의 적극적 개입(2010.1~20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생활 중시 경제정책 방향 제시 - 평양시 10만 세대 주택 건설 지휘 - 박남기 중앙당 계획재정부장 해임 주도 - 김정은을 거쳐 김정일에게로 올라가는 보고체계 수립 - 당대표자회 개최 준비 작업 지휘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1975년경부터 북한군 병영과 사무실에 일제히 김정일의 초상화가 내걸리고, ‘수령(김일성)의 군대’가 ‘수령(김일성)과 수령의 후계자(김정일)의 군대’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북한군은 다시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후계체계 구축은 당중앙위원회를 기반으로 하여 정무원과 군대로까지 확대되어 갔다면,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

은 당과 군대, 공안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김정일보다 일찍 군대와 공안기관의 장악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4)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 단계'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고루 선출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후계자임을 공식화했다. 한편 김정은은 지난 당대표자회에서 비록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의 직책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1980년 김정일이 맡게 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보다 훨씬 높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가지게 되었던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식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후계체계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도표 5>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 단계' 비교

단 계	내 용
김 정 일 (1980.10~19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후계자임을 공식화함 - 1982년 6월에 김일성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군에 김정일의 명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조치를 취함 - 1991년 12월 24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됨으로써 군 통수권을 물려받음 - 1993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국방사업에 대한 지도 권한도 물려받게 됨.
김 정 은 (2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9월 27일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하고, 28일부터 매체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언급 -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당의 핵심 요직에 임명 - 김정은이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찍은 사진과 대표자회 참가 영상 공개 (2010.9.30) - 방북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남으로써 외교무대에 데뷔(2010.10.9) - 김정일과 함께 아리랑 공연 관람(2010.10.9) - 김정일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2010.10.10) -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2010.10.10) - 김정은에 대한 개인승배 본격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직에 선출되지 않은 것은 당의 양대 최고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동시에 관장하는 것보다는 김정일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중과 선택'의 전략에 따라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먼저 장악하고 이를 통해 군부를 확고하게 통제한 후 당중앙위원회의 장악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것이 권력의 안정적 승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 직책부터 먼저 맡김으로써 북한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의 핵심요직에 선출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김정은보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서열상 뒤쳐지는 리영호가 정치국 상무위원 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사실상 정치국 상무위원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일이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을 지난 9월 29일 북한이 보도하면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바로 다음에 언급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번 당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전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은 장성택에 대해 '명실상부한 2인자'로 묘사해오면서 김정일 사후 '섭정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마치 김정일 이후 장성택의 결단에 의해 김정은의 정치적 미래도 결정될 수 있을 것처럼 장성택에 대해 과대평가해왔다. 그러나 당대표자회 개최 중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장성택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커녕 위원직에도 선출되지 못하고 '후보위원'에 그쳤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그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 그가 이 조직에서 가장 위상이 낮은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김정은이 마침내 장성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올해 9월경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유학 경력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다닌 사실만을 소개했다. 그러나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체계를 대외적으로까지 공식화한 이후 10월부터는 대내적으로 방송정론을 통해 "외국에서 2년간의 유학생생활과정을 거쳐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숙달한 천재"라고 최근에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김정은이 외교무대에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하기 전날 김정은은 김정일과 함께 방북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남으로써 외교무대에도 데뷔하였다. 이어서 11일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사실상 김정은의 방중을 요청함으로써 김정은의 활동은 향후 외교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 2> 당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서의 김정일과 김정은



4.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된 지 거의 30년만인 지난 9월 28일 북한은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당의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했다. 이번 당 대표자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2009년 1월 당 지도부 내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한 김정은에게 당의 요직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도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향후 김정은이 당을 중심으로 전 국가와 군대, 사회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개편하고, 당의 위상을 높이며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한 동안 김정일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동당을 통치해나가겠지만, 김정일의 불안정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지도부 개편의 초점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개편 내용 평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과 후보위원 수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총 34명에 달했으나, 2010년 8월에는 총 9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당대표자회에서 다시 27명으로 늘어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북한을 이끌어가는 원로와 실세 그룹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도표 6>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 변화

	1980.10 (34명)	1994.12 (20명)	2000.12 (14명)	2010.8 (9명)	2010.9.28 (27명)
상무 위원 겸 위원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리종욱	김정일 오진우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위원	박성철 최현 림춘추 서철 오백룡 김중린 김영남 전문섭 김환 연형목 오극렬 계웅태 강성산 백학립	강성산 리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광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서운석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김영주 김영남 전병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리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
후보 위원	허담 윤기복 최광 조세웅 최재우 공진태 정준기 김철만 정경희 최영림 서운석 리근모 현무광 김강환 리선실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리선실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림 홍석형 연형목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홍석형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장성택 주규창 리태남 김락희 태중수 김평해 우동측 김정각 박정순 김창섭 문경덕

김정은은 비록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선출되지 않았지만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 등 주요 자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바로 다음에, 그리고 정치국 위원 바로 앞에 호명되었다. 이 같은 사실로부터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병중이라 주요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사망하게 되면 북한은 보선 형식으로 김정은을 상무위원회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김영남(82), 최영림(80), 조명록(82)은 모두 80대 원로들이고, 김정일과 리영호 군 총참모장은 모두 68세로 60대이다. 리영호는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만약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또는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면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후 당중앙위원회에서 권력의 중심이 정치국에서 비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북한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정치국보다는 비서국 우위의 운영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이 발표될 수는 있겠지만, 이들 기관이 실질적인 최고 정책결정기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개편 내용

스탈린 시대의 소련공산당 운영처럼 현재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정치국보다는 비서국이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지난 9월의 당대표자회에서 비서국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이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2010년 8월까지 꾸준히 감소해온 것과는 다르게, 비서국은 대략 10명 내외의 인원을 유지해오다가 2010년에 5명으로까지 줄었지만 지난 당대표자회에서 다시 11명으로 늘어났다.

<도표 7>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구성원 변화

1980.10.14 (10명)	1994.12 (11명)	2000.12 (9명)	2010.8 (5명)	2010.9.28 (11명)
김일성(총비서)	김정일(총비서 대행)	김정일(총비서)	김정일(총비서)	김정일(총비서)
김정일	계응태(공안)	계응태(공안)	전병호(군수공업)	김기남(선전선동)
김중린	전병호(군수)	전병호(군수)	최태복(국제.교육)	최태복(국제.교육)
김영남	한성룡(경제)	한성룡(경제)	김국태(간부)	최룡해(근로단체)
김환	최태복(교육)	최태복(교육)	김기남(선전)	문경덕(평양 담당)
연형묵	김중린(근로단체)	김기남(선전)		박도춘(군수)
윤기복	서관희(농업)	김용순(대남)		김영일(대중 정책)
홍시학	황장엽(국제)	김국태(간부)		김양건(대남 정책)
황장엽	김기남(선전)	김중린(근로단체)		김평해(간부)
박수동	김국태(사상)			태종수(총무)
	김용순(대남)			홍석형(계획재정)

당대표자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의 직무를 살펴보면, 유입된 김기남 비서는 선전선동부장으로서 선전선동 업무를, 최태복 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서 대외 친선의

교와 교육을 계속 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최룡해 비서는 근로단체에 대한 지도를 맡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룡해가 대장의 군사칭호를 받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된 점에 비추어 그를 군사 담당 비서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군 복무 외에 특별한 군대 경력이 없는 그가 군사 부문 전반을 담당하는 비서에 임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군사 담당 비서직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를 역임한 최룡해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한 것은 입대할 청년들 중 당원이 아닌 군인들은 모두 청년동맹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군대 내의 청년동맹 조직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2일 최룡해 비서가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를 축하하는 농업근로자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대회에 참가한 것도 그가 근로단체를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 선출된 문경덕 비서는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겸임함으로써 '혁명의 수도'인 평양시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과 김정은이 지휘하는 평양시 10만 세대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박도춘 비서는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영일 비서는 중앙당 국제부장으로 대중 관계를, 김양건 비서는 중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 관계를, 김평해 비서는 중앙당 간부부장으로 간부 사업을, 태종수 비서는 중앙당 총무부장으로 중앙당의 행정 업무를, 홍석형 비서는 중앙당 계획재정부장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권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은 비록 비서국에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총비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비서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적절한 시기에 김정은을 조직 비서에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김정은이 선전선동, 근로단체, 간부, 평양시, 군수, 대중 정책, 대남 정책, 경제 등 주요 핵심 분야들을 망라하는 비서들로 구성된 비서국을 통해 국정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의 위상 재확립

지난 9월의 당대표자회를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이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모두 19명이 지명되어, 외형상으로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때 구성된 인원과 같은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6차 당대회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부위원장 직제가 도입되어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리영호 군 총참모장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지만, 그는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실상 '제1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제부터 군부 장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하는 계간지 《합참》 제44호에 올해 필자가 게재한 김정은의 군부 장악 실태에 대한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김정은의 군부 장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북한군은 이미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도표 8>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변화

	1980.10 (19명)	1994.12 (14명)	2010.8 (6명)	2010.9.28 (19명)
위원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리영호
위원	오진우 김정일 최현 오백룡 전문섭 오극렬 백학립 김철만 김강환 태병렬 리을설 주도일 리두익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리봉원 오룡방	오진우 최광 백학립 리을설 리두익 김두남 리하일 김익현 조명록 김일철 리봉원 오룡방 김하규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리하일 김명국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최룡해 장성택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군 총참모장(리영호)을 비롯하여 총참모부 작전국장(김명국),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군사 담당 제1부부장(김경옥), 보위사령관(김원홍), 해군사령관(정명도), 공군사령관(리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최부일), 호위사령관(윤정린), 경찰총국장(김영철) 등 군부 핵심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방위원회보다 군대의 지휘에 적절하게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다.

<도표 9>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2010년 10월 현재)

이름(출생연도)	직책	군 계급	겸직 현황과 주요 경력
김정일(1942)	위원장	공화국 원수	당 총비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김정은(1983)	부위원장	대장	국가안전보위부부장. 2010년 9월 27일 대장의 군사칭호 받음.
리영호(1942)	부위원장	차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2010.9~), 군 총참모장(2009.2~)
김영춘(1936)	위원	차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2009.2~),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前 군 총참모장)
김정각(1941)	위원	대장	정치국 후보위원,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2007.3~),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
김명국(1940)	위원	대장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前 108기계화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김경옥	위원	대장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2010년 9월 27일 대장의 군사칭호 받음.
김원홍	위원	대장	보위사령관
정명도	위원	대장	해군사령관
리병철	위원	대장	공군사령관
최부일	위원	대장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2010년 9월 27일 대장의 군사칭호 받음.

김영철(1946)	위원	상장	정찰총국장
윤정린	위원	대장	호위사령관
주규창(1928)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당 기계공업부장(2009.9~),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전 제2경제위원장
최상려	위원	상장	
최경성	위원	상장	(11군단장?)
우동측(1942)	위원	대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2009.9~),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최룡해(1950)	위원	대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2010.9~), 당중앙위원회 비서(2010.9~), 전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2010년 9월 27일 대장의 군사칭호 받음.
장성택(1946)	위원		당중앙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2010.6~),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2010.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국방위원회에서 제1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명록,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극렬과 리용무, 위원직을 맡고 있는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단지 위원직에 머무르게 되었다.

<도표 10> 북한 국방위원회 구성원(2010년 10월 현재)

이름(출생연도)	직책	군 계급	검직 현황과 주요 경력
김정일(1942)	위원장	공화국 원수	당 총비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조명록(1928)	제1부위원장	차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군 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 직 해임)
김영춘(1936)	부위원장	차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 당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리용무(1925)	부위원장	차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前 군 총정치국장, 교통위원회 위원장)
오극렬(1931)	부위원장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前 군 총참모장, 공군사령관)
장성택(1946)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당 행정부장, 당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전병호(1926)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내각 정치국 국장·당 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전 중앙당 군수공업부장)
백세봉(1946?)	위원		제2경제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주상성(1933)	위원	대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보안부장(2004.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우동측(1942)	위원	상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2009.9~), 당중앙군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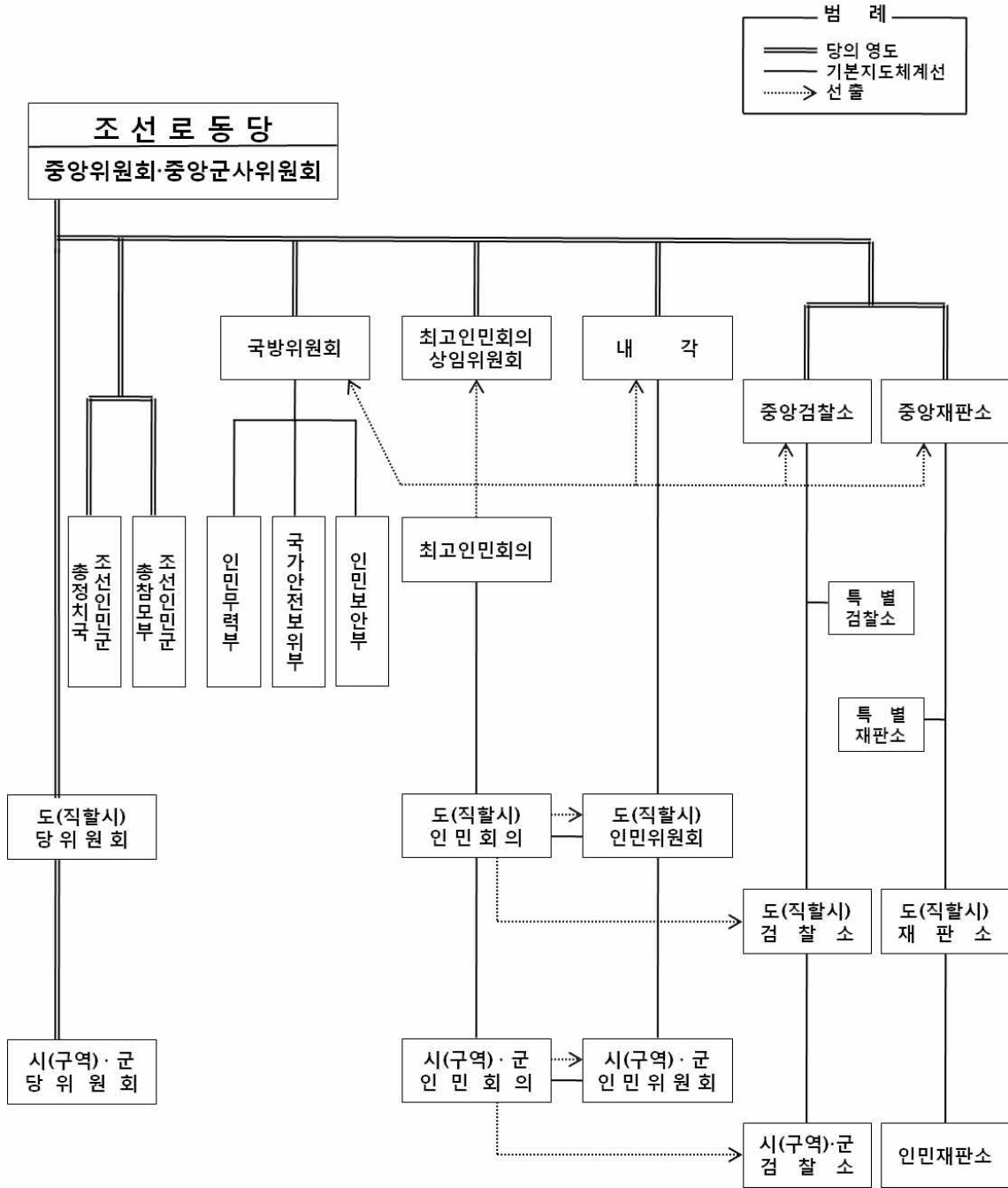
주규창(1928)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당 기계공업부장(2009.9~), 당중앙군사위원
김정각(1941)	위원	대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중앙군사위원

이 같은 국방위원회의 '수모'는 소련과 중국에서처럼 사회주의체제에서 군대는 곧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는 군대의 지휘와 관련해서는 실권이 없는 기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국방위원회와 같은 국가 군사지도기관은 전시에 주민 동원과 내각경제를 군수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당 군수공업부장을 맡았던 전병호 국방위원이 이번에 내각 정치국 국장,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은 바로 전시에 내각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82세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79세의 리을설 원수, 75세의 리하일 차수가 빠짐으로써 74세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82세의 주규창 중앙당 기계공업부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60대의 인물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20대의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보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세대교체가 가장 뚜렷하게 이루어졌다.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정일이 사망하면, 과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김정은도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폐지되면서 '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중국의 경우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일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체계 (통일부 작성 북한권력체계도에 대한 대안)



5. 맺음말

1)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 비교 평가

김정일과 김정은의 정치적 부상 과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를 주된 기반으로 했는데 비해, 김정은은 군 총정치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공간기관을 주된 권력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일반 종합대학을 졸업한 데 비해, 김정은은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는 등 김정일과 김정은의 경력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안정적인 시기에 권력을 승계하였으나, 김정은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해 북한이 안보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과 김정일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다.

2009년에만 해도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에서 장성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핵심 측근으로서 보좌했다. 그런데 2010년 현재에는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대장 칭호를 수여받고 정치국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에 임명됨으로써 장성택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국가안전보위부를 관장하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강화되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이 약화되는 등 김정은 측근들의 약진과 원로들의 점진적 퇴진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10월 10일의 열병식 때 김정은이 바로 오른편에 있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에게 뉘가를 물어보자 김영춘이 김정은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려 공손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는데, 이 같은 장면은 김정은이 이미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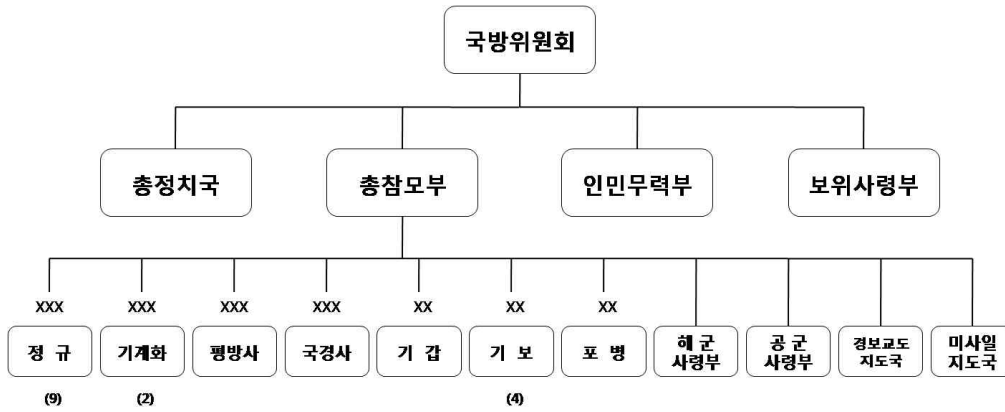
지난 9월의 당대표자회 때에도 다른 참가자들이 양손을 얼굴 높이까지 올려 힘껏 박수를 칠 때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가슴 정도 높이에서 왼손 바닥에 오른손 바닥을 박수를 쳐 김정일과 같은 수령 행세를 하였다. 이처럼 김정은은 단기간 내에 김정일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김정은의 '나이'와 '경험'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하여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 전문가는 “김정은 후계체계가 순조롭게 구축될 가능성은 10%미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김정은 후계체계의 진전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붕괴할 것이라고 보았던 북한체제는 그동안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 체제의 붕괴만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고립주의의 길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등소평처럼 북한을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스마트한 대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부 발간 북한군사지휘기구도와 조선노동당 조직도의 수정 필요성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북한군을 지휘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핵심 지휘관들로 구성되었으므로 국방부 발간 『국방백서』의 '북한 군사지휘기구도'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니라 국방위원회가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발간될 백서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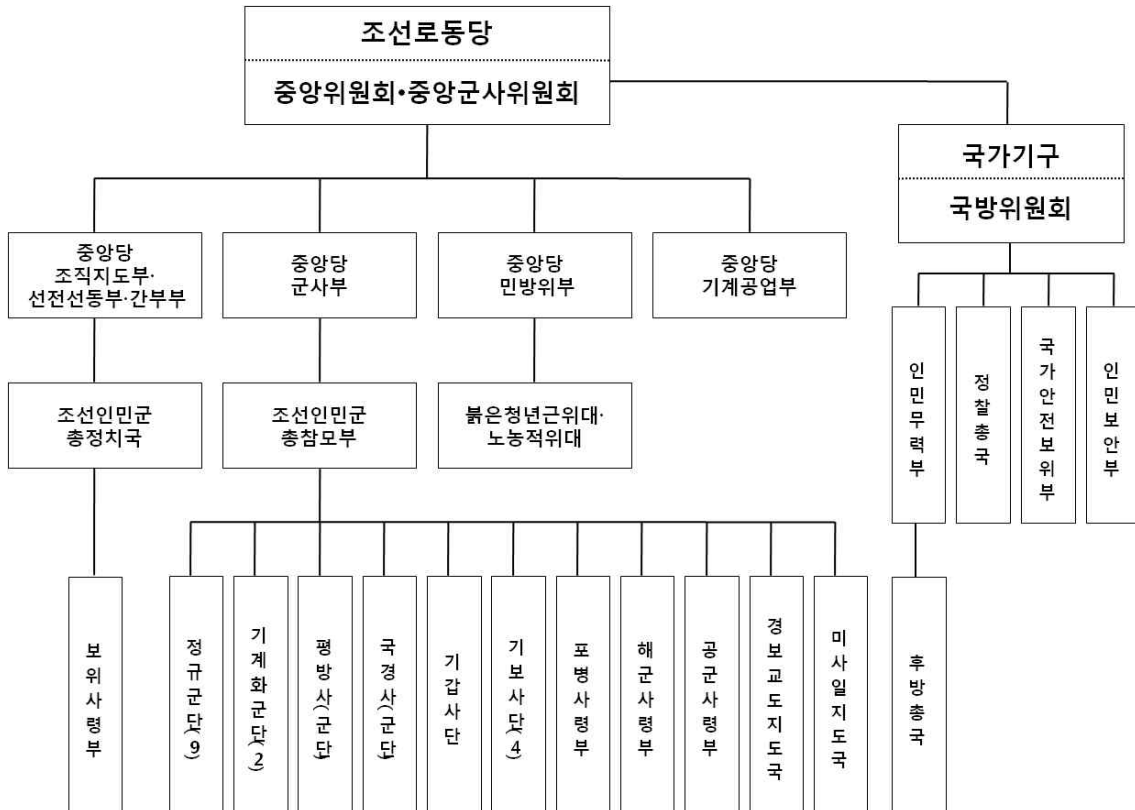
<도표 12> 국방부 발간 『국방백서』의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XXX : 군단, XX : 사단

필자가 올해 1월에 발간된 《합참》 제42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국방위원회는 과거 소련 국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로 전시 주민동원과 민간경제의 군수용 전환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 '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구'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군사작전이나 군 지휘와 관련해서는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지 못하고 있다.

<도표 13> 북한의 군사·국방지도체계 (국방백서의 '북한군사지휘기구도'에 대한 대안)



북한 국방위원회의 군사 및 안보 관련 명령을 분석해보면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인 인민무력부의 개편, 국가안전보위부의 비상경계태세 발령, 민방위 및 군복무와 관련한 명령들만이 하달되고 있다. 반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시사업세칙》 제정 등 전쟁 준비와 군사훈련, 부대 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인사 개편을 통해서도 그 같은 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가 대외용 문건인 북한 헌법의 조문에 현혹되어 여전히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적실성 있는 대북 군사전략 수립을 어렵게 할 것임이 분명하다.

올해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3쪽을 보면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인 군 총정치국을 지도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도체계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인민무력부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 같은 부적절한 그림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군 지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 발간 공식 문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통일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시한 조선노동당 조직도를 보면 당중앙위원회 밑에 정치국과 비서국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동안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와는 구별되는 5대 주요 권력기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의 당대표자회 결과 보도에서도 김정일의 직책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선거’의 대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직’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구별되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부의 조선노동당 조직도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